

中에서도 가장 不完全狀態로 出土되는 것은 土製와 石製라 할 수 있다. 그 製作過程이 容易한 단차 破損되어 나오는 量도 많다. 이 不完全한 佛像은 흔히 頭部, 胴體, 脚部 등으로 分離되어서 發見되는 例常例이다.

그 例로 土製佛頭와 石製佛頭를 들어 보고자 한다.

一、土製佛頭 (圖版(가)) 頭高 六 cm

一九五八年 七月二十九日 舊校里 빙고재(水庫峴)部落 韓權洙家 北側에서 人蔘圃를 治圃하다가 出土된 것이다. 出土地點 附近은 北에 적은 土崗을 依支하고 그 너머에는 白馬江이 東에서 西로 흐르며 前方은 後崗보다 若干 높은 土山



이 가로 막았고 西側만이 窺岩便을 向해서 터져 있는 곳으로 寺址로써 適地라 할만한 곳이다.

이 附近에서 忍多紋埴片도 出土된 일이었다. 이 佛頭는 淡朱色土로 만들어졌다. 後頭部가 後頭部까지 깃뒹하게 깎겨내려 갔으며 前面에서 볼 때 兩 귀가 얼굴에 比해서 큼직하고 肉髻가 또한 크게 보인다. 이마전 이 넓고 鳳眼은 가늘게 감였으며 鼻部가 破損되었으나 口唇에는 微笑가 있는

가름한 얼굴로써 製作手法이 自然스러웠다. 後頭部에 깊이 1cm의 小孔이 있음을 보아서 背光을 附着시킨 痕跡이 아닐까 생각된다.

二、石製佛頭 (圖版(나)) 頭高 五·五 cm

이 石製佛頭는 一九五八年 八月二十九日 舊校里(鄉校밭)에서 出土되었다.

이 地點은 約 一五〇坪 內외의 扶蘇山 西便中腹으로 西向해서 白馬江이 指呼之間에 내려다 보이며 九龍大野가 一眸에 들어오는 곳이라 지 금도 建物址에는 地臺石과 土佛破片, 無紋埴破片, 滑石製 佛臺座破片 등이 間間 나오는 곳으로 百濟寺院址로 認定되는 곳이다.

佛頭는 淡青色石質이다. 頭上에는 높은 三面 寶冠을 우뚝하게 썼는데 前面 寶冠片에는 瓶形이 浮刻되어 있다. 兩 귀가 길죽하게 늘어졌고 眉目이 秀麗하며 鳳眼과 口唇이 가법게 表現되었다. 哀惜하게도 鼻部가 缺失되었으나 大體로 가름한 顔面에 若干의 微笑가 있는 듯하다. 當初부터 頭部와 胴體를 別造하여 붙인 듯 頭部中央에는 1cm 정도의 小孔이 있다. 製作手法이 매우 洗練된 工匠의 솜씨로서 當時 技巧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.

### 日本 根津美術館의 高麗浮屠

李 弘 植

日本 東京都 港區 青山의 根津美術館 入口 左右와 넓은 庭園에는 日帝 時 우리나라에서 無斷搬出된 李朝文武石人 高麗龜趺 李朝石燈 石羊銅佛① 銅鐘② 高麗方形塔③ 등이 놓여 있다. 그 中에서도 本館前庭中 中央에 位置한 八角圓堂型浮屠 一基는 地臺石을 除外한 各部石材가 完備한 優秀한 作品으로서 특히 注目되었다. 複蓮瓣과 隅花가 새겨진 下臺石上에는 八角竿石이 있는데 前後를 向한 雲中爭珠의 四龍紋이 高彫되어 있다. 上臺石은 單瓣仰蓮인 바 그 上面에 圓座 八개가 模刻되었고



그 위에八角塔身이  
높여 있는데塔身은  
全高에 比하여 過長  
한 느낌이 있다. 塔  
身各面에는 四天王  
立像과 門戶形과 刹  
窓門形이 彫刻되어  
있다. 屋蓋 또한 八  
角인데 隅棟이 뚜렷  
하여 檐端에는 瓦當  
紋과 角形浮椽이 달

리고 그 밑에 圓柱形과 다시 支輪形이 模刻되었으며 塔身圓柱上部에는  
斗拱形이 結構되어 있어 當代 建築의 細部를 忠實히 따르고 있다. 頂上  
의 相輪部는 喪失되었으나 七角形의 寶蓋石④과 圓形石이 重疊되어 있  
다. 花崗石造인 바 各部의 架構와 彫刻에 있어 多少 均衡을 잃고 鈍重  
함과 形式化의 손씨를 보이고 있으나 高約二m餘의 巨品으로서 高麗  
中期以前의 佳作으로 推定된다. 當局者에게 所藏의 由來를 問議하여 보  
았으나 日帝時에 古物商에서 購入하였다고 말할 뿐 아무런 資料가 없다  
고 한다. 美術館入口에 放置되어 있는 高麗 龜趺 一座와 有關할 것으로  
 짐작되나 原寺址와 塔碑名을 찾을 수는 없었다.

註

① 거의 크기가 같은 靑銅座佛 二座가 露天에 安置되어 있는데 李  
朝初期의 作品으로서 巨像이다. 國內에서 볼 수 없는 作品인데 搬  
出場所는 未詳이다.

② 庭園一角에 陳列되어 있는 바 李朝後期の 中鐘으로서 樣式의 特  
異點은 없으나 相當한 字數의 銘文이 있어서 鑄造年月과 寺名 및  
鑄成關係者가 列記되어 있다. 즉 鐘眉一處에 「主上殿下壽萬歲」가  
鑄刻되어 있고 鐘身下部에는 左와 같은 鑄成記가 陰刻되어 있다.

康熙二十九年庚午五月日 固城縣西嶺臥龍山雲興寺大鐘重五百斤 大

- 鐘大施主金好成「大施主崔用鶴」嘉善大夫敬允
- 施主 趙戒汗「大施主大默」兼大鐘施主李三郎「大施主盧於叱金大  
施主李時賢」鑄成通政大夫 金愛立「金禮發」大功德前和尚嘉善慈  
洽「前和尚判司英下」前和尚通政 元敦「山中大禪師鏡臨」大師 就忍  
鑄監兼和尚 性寬「三寶 呂天」首僧 祖下「持寺 審寶敬」鑄色兼書  
記快「化主 幸旭」別座 信梅「供養主 假計」再右「鑄成所持殿  
學湖」法堂持殿 省下「無甘」
- (高一m二五、下徑七七cm 上帶는 重圈梵字文 下帶는 寶相花文 四  
乳廓間에 四菩薩立像이 配置되고 頂上에 雙龍鈕 있고 甬筒은 없음)
- ③ 現在四層으로 單層基壇上에 놓인 小塔인데 塔材에 後補가 있다.
- ④ 說明板에 이 八角寶蓋石은 後補라고 하였으나 그 下底의 蓮花文이  
나 石質로 보아 再考를 要할 것이다. 相輪部의 石質이 塔身과 다  
른 것은 우리나라 石塔에 있어 通有한 일이다.

高麗佛畫—阿彌陀像과 觀經變相

黃 壽 永

日本에는 壬亂以前の 우리 古文化財가 많이 傳世하고 있다. 더욱이 近  
年에 이르러 古社寺의 寶物이 調査됨에 따라서 새로운 遺品이 發見되고  
있는데 繪畫部門에 있어서는 從前에 中國畫라고 傳稱되어 오던 것이 韓  
國畫로 判明된 것도 不少하다고 한다. 그리하여 高麗의 佛畫는 羅·麗  
의 梵鐘과 더불어 國內에서 보라도 日本에서 더욱 많은 遺例를 볼 수 있  
다고 할 것이다. 이 곳에 紹介하는 二幅은 今年에 들어서 注目된 것으로  
 모두 發願文이 있어 年代와 因緣을 알 수 있었다.

一、阿彌陀坐像(重要美術品)一幅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藏  
絹本着色으로서 縱 五尺四寸一分 橫 三尺六寸인 바 今春 同館에 出品  
되었었다. 蓮花座上에 結跏趺坐한 正面의 獨尊像으로서 法衣는 紅色과  
綠色을 主調로 삼았고 八角臺座는 極彩色의 莊嚴을 하였다. 圓形金線의